



# *Bass plays kreisler*

더블 베이스스트 성민제 리사이틀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앞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겨주세요.



악장 사이 방금듣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앞자리를  
방금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단,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에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들의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조연에서 주연으로, 더블베이스 날개를 달다

DOUBLE BASSIST SUNG MINJE RECITAL

9NOOY®

**CREDIA**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리사이틀**

*Bass plays kreisler*

바이올린 장유진 · 비올라 이한나 · 피아노 최현호

**2019.3.15 FRI 8 PM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 더블 베이스스트 성민제 리사이틀

2019년 3월 15일 (금)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브루흐 1838-1920

**콜 니드라이 Op. 47**

에클레스 1670-1742

**소나타 g 단조**

피아졸라 1921-1992

**남쪽: 사랑으로 돌아가다**

파가니니 1782-1840

**모세환상곡 M.S. 23**

중간휴식

크라이슬러 1875-1962

**타르티니 스타일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

**사냥, 카르티에 스타일의 광시곡 ◊**

**쿠프랭 스타일의 상송 루이 13세와 파반느 ◊**

**말라게냐 ◊**

**마르티니 스타일의 안단티노 ◊**

**사랑의 슬픔 ◊**

**아름다운 로즈마린 ◊**

**푸냐니 스타일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

편곡 김택수 ◊, 김민경 ◊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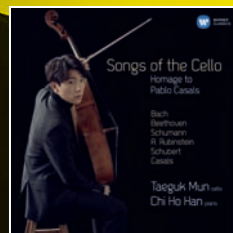
# TAE GUK

2014 카잘스 콩쿠르 아시아 최초 우승 문태국  
2014 ARD 콩쿠르 1위 없는 2위 한지호

# MUN &

# 문태국 & 한지호

## 듀오 리사이틀



# HAN DUO

# RECITAL

워너 인터내셔널 데뷔 음반 <SONGS OF THE CELLO> 발매 기념

2019.3.22 FRI 8 PM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WARNER CLASSICS SUNGJUNG CULTURAL FOUNDATION | Cellist MUN

티켓 | R석 6만원 | S석 4만원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DOUBLE BASSIST SUNG MINJE RECITAL**

8PM Friday, March 15, 2019 at IBK Chamber Hall, Seoul Arts Center

Max Bruch <sup>1838-1920</sup>**Kol Nidrei Op. 47**Henry Eccles <sup>1670-1742</sup>**Sonata in g minor**Ástor Piazzolla <sup>1921-1992</sup>**Sur: Regreso al Amor (South: Return to Love)**Niccolò Paganini <sup>1782-1840</sup>**Mose-Fantasia M.S. 23**

INTERMISSION

Fritz Kreisler <sup>1875-1962</sup>**Variations on a theme by Corelli in the style of Tartini ♦****La Chasse, Caprice in the style of Cartier ♦****Chanson Louis XIII and Pavane in the style of Couperin ♦****Malagueña ♦****Andantino in the style of Martini ♦****Liebesleid ♦****Schön Rosmarin ♦****Praeludium and Allegro in the style of Pugnani ♦**

Arranged by Texu Kim ♦, Minkyong Kim ♦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크라이슬러, 더블베이스의 날개를 달다

## 성민제 Double bass Plays Kreisler



[수록곡]  
Fritz Kreisler (1875-1962)

- 01 사랑의 기쁨
- 02 사랑의 슬픔
- 03 아름다운 로즈마린
- 04 푸냐니 형식의 '서주와 알레그로'
- 05 타르티니 형식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 06 쿠프랭 형식의 '루이 13세 시대 노래와 파반'
- 07 쿠프랭 형식의 '세련된 귀부인'
- 08 프랑코르 형식의 '시실리엔과 리고동'
- 09 W. F. 바흐 형식의 '그라베'
- 10 디터스도르프 형식의 '스케르초'
- 11 마르티니 형식의 '기도'
- 12 마르티니 형식의 '안단티노'
- 13 보케리니 형식의 '알레그레토'
- 14 카르티에 형식의 '사냥'
- 15 베토벤 주제에 의한 '룬디노'
- 16 알베니스 형식의 '말라게냐'

더블베이스라는 악기를 조연에서 주연으로 이끈 주인공, 성민제가 크라이슬러로 돌아왔다. 9년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었던 크라이슬러 레퍼토리를 드디어 펼쳐내어 더욱 흥미로운 이번 앨범에서 성민제는 크라이슬러의 아름답고 진숙한 소품을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등과 함께 연주한다.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린 등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크라이슬러의 곡이 더블베이스로 재탄생했다.

문의 | 유니버설 뮤직 02) 2106-2081~6 크레디아 스타쉽 02) 741-1523



**막스 브루흐** 1838-1920, 독일

## 콜 니드라이 Op. 47

M. Bruch | Kol Nidrei Op. 47

막스 브루흐(1838-1920)는 세 개의 교향곡과 다섯 개의 협주곡, 네 개의 오페라, 그리고 다수의 실내악과 가곡을 작곡한 독일 낭만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오늘날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콜 니드라이>만이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콜 니드라이>는 브루흐가 리버풀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된 1880년에 작곡되었으며, 이듬해에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모두 경배'라는 뜻으로 '신의 날'이라고도 번역되는 '콜 니드라이'는 유대교의 속죄일(Yom Kippur) 전날 밤에 부르는 경건한 기도 선율이다. 이 곡에 등장하는 두 개의 주제는 이 선율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반부는 첫 번째의 주제가 제시된 후 변주되며, 후반부는 두 번째 주제가 관현악으로 제시된 다음 독주 첼로가 이를 받아서 연주한다. 유대 선율을 사용한 탓에 브루흐가 유태인이라는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음악은 유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일 낭만의 음악언어가 그 중심에 있다. <콜 니드라이>는 후에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초연하게 되는 첼리스트 로버트 하우스만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그에게 헌정되었다.

**헨리 에클레스** 1670-1742, 영국

## 소나타 g 단조

H. Eccles | Sonata in g minor

영국 출신의 작곡가인 헨리 에클레스(1670-1742)는 런던의 프랑스 대사인 오몽 공작(Duke d'Aumont)에 봉직했으며, 1713년에 그와 함께 파리로 이주했다. 에클레스는 파리에서 1720년과 1723년에 바이올린 소나타집을 출판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앞선 작품인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독주곡집' 중 11번째 곡 <소나타 g 단조>이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교회 소나타'로서, 느린 첫 악장으로 시작하여 활기 있는 빠른 악장이 이어지며, 또다시 애수 어린 느린 악장이 등장한 후 다급하게 달려가는 마지막 악장으로 마무리한다. 이 곡은 본래 바이올린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는 첼로와 더블베이스로도 자주 연주된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1921-1992, 아르헨티나

## 남쪽: 사랑으로 돌아가다

Á. Piazzolla | Sur: Regreso al Amor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1992)는 젊은 시절부터 반도네온의 명인이자 탱고 음악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뉴욕에서 살면서 익숙해진 재즈의 영향으로, 그의 탱고에는 정박리듬과 단순한 화음 대신 당김음 리듬과 불협화음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탱고의 기반을 뒤흔드는 변화였고, 춤을 위한 탱고가 아니라 감상을 위한 탱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탱고를 '누에보 탱고' 즉 '새로운 탱고'라고 불렀다. 그는 탱고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탱고를 남미의 지역 음악에서 전세계가 사랑하는 음악으로 확대시킨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작품 목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작곡했으며, 그 중에는 영화음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는 28세 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영화음악을 작곡했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망각>도 '엔리코 4세'(1984)의 영화음악이다. 오늘 연주되는 <사랑으로 돌아가다>는 '남쪽'(1988)의 OST에 포함된 곡으로,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몽롱한 반주에 선율은 목적을 잃은 채 방향과 슬픔을 가득 머금고 있다. 그러다 잠시 신비로운 화음으로 현기증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니콜로 파가니니** 1782-1840, 이탈리아

## 모세 환상곡 M.S. 23

N. Paganini | Mose-Fantasia M.S. 23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의 <모세 환상곡>(1819)은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중 모세의 아리아 '당신의 별의 옥좌로부터'를 주제로 만든 변주곡이다. 이 노래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파가니니의 이 작품을 <기도 소나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도입부와 주제, 세 개의 변주로 구성된 변주곡으로서 '소나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855년에

함부르크에서 출판된 악보에는 <로시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화려한 변주곡>이라고 적혀있으며 <모세 환상곡>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 곡은 바이올린에서 가장 쉬운 4번현으로만 연주된다는 특징이 있다. 파가니니가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바이올린을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는데 현이 하나씩 끊어져 결국 4번현만 남게 되었다. 그는 이 하나의 현으로만 연습을 했고 결국 4번현으로만 연주하는 특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4번현으로만 연주하는 곡으로서 <모세 환상곡>은 <나폴레옹 소나타>(1807)와 <마리아 루이사 소나타>(1810)에 이은 세 번째이며, 이후에도 작곡되었다.

서주는 사실상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를 두 번 연주한 후 한 옥타브 올려서 그리고 플레절렛(하모닉스)으로, 그리고 다시 주제를 연주하고 카덴차까지가 서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제가 제시되고 무궁동 스타일의 제1변주와 스타카티시모로 톡톡 튀는 제2변주, 그리고 제1변주와 비슷하지만 스타카토와 이음줄을 교대로 연주하는 제3변주로 진행된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 타르티니 스타일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F. Kreisler | Variations on a theme by Corelli in the style of Tartini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1875-1962)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수많은 소품들을 작곡하여 낭만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작곡가의 전형을 이어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빈의 우아한 품격과 긍정적 취향, 애뜻한 정서, 그리고 순수한 감각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격과 덕망이 높아 생전에 큰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크라이슬러는 괴상한 취미가 있었다. 옛 스타일로 작곡을 하고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 작곡가의 필사본을 편곡한 것이라고 발표하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곡은 모두 열일곱 곡으로, '고전 필사본'(classical manuscripts) 시리즈라고 불렸다. 이 작품들은 음악학자들의 논란을 불러왔는데 크라이슬러가 1935년에 사실을 실토함으로써 현대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도 그 중 하나로, 주세페 타르티니(1692-1770)의 스타일로 변주했

다. 먼저 당당한 코렐리의 주제가 제시된 후, 제1변주는 현을 바꾸면서 스타카토로 펼친화음을 연주하며, 제2변주는 트릴이 자주 등장한다. 제3변주는 3화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트리플 스톱이 연속되며, 마지막 제4변주는 변주라기보다는 주제를 다시 연주하여 마무리하는 코다에 가깝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 사냥, 카르티에 스타일의 광시곡

F. Kreisler | La Chasse, Caprice in the style of Cartier

1910년에 출판된 <사냥>은 장 밥티스트 카르티에(1765-1841)의 작품으로 발표했다가 자신의 창작임을 밝힌 곡으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팡파르로 시작하여 말을 달리는 듯한 부점 리듬으로 경쾌하게 진행된다. 그러다 중간에 잠시 팡파르가 울리고 조성을 바꾸며 대열을 재정비한 후, 다시 사냥이 속개되어 마무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음주법(두 현을 동시에 켜서 화음을 만드는 연주법)으로 연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 쿠프랭 스타일의 샹송 루이 13세와 파반느

F. Kreisler | Chanson Louis XIII and Pavane in the style of Couperin

역시 1910년에 출판된 <샹송 루이 13세와 파반느>은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루이 쿠프랭(1626-1661)의 곡인 것처럼 출판했다가 후에 자신의 창작임을 밝혔다. 전반부 '샹송'은 코랄 풍의 반주와 옛 민요 스타일의 선율이 인상적이며, 차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하다. 후반부 '파반느'는 춤곡의 리듬으로 한층 밝아지며, 트릴과 꾸밈음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마무리된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말라게냐**

F. Kreisler | Malagueña

1927년에 출판된 <말라게냐>는 본래 스페인의 민족주의 작곡가 이사크 알베니스(1860-1909)의 피아노 작품으로,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했다. '말라게냐'는 스페인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도시 말라가의 춤을 뜻하는 말로, 판당고와 유사하면서도 감각적인 화음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격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춤곡이 연주된 후,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서정적인 선율로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다시 열정적인 춤이 재등장하여 마무리한다.

한 인물이다. 이 곡은 애잔한 주제 선율로 시작한다. 꾸밈음과 스타카토, 헤미올라(두 마디를 셋으로 나눈 리듬)가 더해져 네 마디의 첫 동기부터 다양한 표정으로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다. 그러다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 변주되지만, 뒤끝같이 남은 섭섭함이 깃들어가 있다. 또다시 이 두 선율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네 마디에 걸친 트릴 후 한 옥타브로 가볍게 도약하여 마친다. 피아노 반주는 오스트리아의 춤곡인 3박자의 랠틀리 리듬으로 오스트리아의 정서를 강하게 품고 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마르티니 스타일의 안단티노**

F. Kreisler | Andantino in the style of Martini

<안단티노> 또한 1910년에 지오바니 바티스타 마르티니(1706-1784)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나 후에 자신의 작품임을 밝혔다. 웬지 모를 설렘이 느껴지는 밝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한 후 잠시 근심어린 단조로 바뀌지만, 곧 떨쳐내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돌아온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아름다운 로즈마린**

F. Kreisler | Schön Rosmarin

<아름다운 로즈마린>은 요제프 라너 스타일의 왈츠로 제목에 사용된 '로즈마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이야기가 없다. 베토벤의 '엘리제'와 같이 짝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해본다. 이 곡은 스타카토 연습곡이라고 할 정도로 스타카토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로즈마린의 발랄한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밝고 경쾌한 화음으로 크라이슬러의 우아한 매력이 빛을 발한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사랑의 슬픔**

F. Kreisler | Liebesleid

<사랑의 슬픔>은 크라이슬러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곡으로, 크라이슬러 자신도 앙코르로 종종 연주했다. 이 곡은 1905년에 <사랑의 기쁨>, <아름다운 로즈마린>과 함께 '옛 빈의 춤곡'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요제프 라너(1801-1843)의 사후에 발견된 곡인 것처럼 출판되었다. 라너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함께 활동했던 빈 왈츠의 역사에 중요

**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1962, 오스트리아

**푸냐니 스타일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F. Kreisler | Praeludium and Allegro in the style of Pugnani

1910년에 출판된 <전주곡과 알레그로> 또한 '고전 필사본' 시리즈로서 가에타노 푸냐니(1731-1798)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거인이 발걸음을 옮기는 듯 한 음 한 음에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강렬한 전주곡으로 시작한 후, 알레그로 부분에서는 무궁동 스타일로 빠르게 연주된다.



한일문화교류 스페셜콘서트 VOL.6

# 베틀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

in SEOUL 2019

## Music Festival *Argerich's* Meeting Point in Beppu 2019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Special Concert Vol.6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임동혁



2019.5.7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Tuesday 7 May, 2019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SANGMOOK LEE

© MARCO BONICORE



## 더블 베이스리스트 성민제

SUNG MINJE, DOUBLE BASSIST

성민제는 16세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요한 마티아스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했다. 2007~2008년에는 대원음악상과 금호음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세계에서 더블베이스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으며, 2011년에는 독일 마르크노이키르헨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국내외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성민제는 국제 더블베이스 앙상블 바시오나 아모로사와 함께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 미국 데뷔 무대를 성공리에 마치고 동시에 베를린 필하모닉 체임버 홀에서 솔로 무대로 독일에 데뷔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첫 번째 음반 <더블베이스의 비행 Flight of the Double B>이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발매된 동시에, 독일 하일브론에서 뷔템베르크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발매를 기념하는 협연을 하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한 성민제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을 주축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7명의 라이징 연주자들과 함께 '정명훈과 7인의 음악인들' 무대에 올랐다. 2012년에는 뮌헨 클로스터 폴링 비블리오테크잘 메인 홀에서 기돈 크레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앙상블 MUNIQUE로 데뷔했고, 같은 해 스위스의 레히 클래식 뮤직 음악제에 초청되어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다. 또한, 더블베이스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펼쳤다.

2013년에는 프랑스 국제 음악제인 카잘스 페스티벌에 최연소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바시오나 아모로사 일원으로 세계적 권위의 독일 에코 클래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어, 2집 앨범 <Unlimited> 발매 기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더블베이스 솔로 연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또한, 클래식 영화 <앙상블>로 영화배우도 새롭게 시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공연한 <로맨티스트>, 피아니스트 지용, 멀티 뮤지션 정재일과 함께한 슈베르트 프로젝트로 슈베르트 작품을 더블베이스 사중주로 연주한 <언타이틀드>를 통해 더블베이스의 레퍼토리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3집 <Unplugged>를 발매했고, 자라섬 페스티벌, 서울재즈페스티벌, ACC 뮤직페스티벌 등 재즈 연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와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중 제주도립교향악단과의 협연자로 초청받았으며, 국제 네덜란드 더블베이스 페스티벌에 게리 카와 한 무대에 올라 성공리에 연주를 마쳤다.





##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YOOJIN JANG, VIOLINIST

2016년 일본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은 학구적인 곡 해석과 폭발적인 기교로 관중의 눈과 귀를 무대로 집중시키는 걸출한 카리스마를 가진 연주자이다. 특히 장유진은 바이올린으로 창조해내는 소리의 섬세한 질감, 그리고 음악 전달력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말보로 체임버 뮤직페스티벌, 카라무어 라이징 스타 시리즈, 마이러 헤스 메모리얼 콘서트 시리즈, 라비니아 스톤 인스티튜트 온 투어, 올드 사우스 미팅 하우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등 보스턴, 뉴욕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2017-2018 시즌에는 일본에서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독주회, 음반 녹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실내악에서 열정과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장유진은 2009년 KNUA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하여, 같은 해에 실내악 부문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실로스 바이커스 장학금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솔리스트들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와 함께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창단하여 활동 중이다.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은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작품 전곡 연주> 등 도전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은 연주와 함께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계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콩쿠르에서 두각을 보인 장유진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메뉴힌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일본 무네츠쿠 콩쿠르,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러시아 영 뮤지션을 위한 차이콥스키 홀랜드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다.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사사 김남윤)를 수석 졸업한 후 도미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연주자이자 교육자인 미리암 프리드 문 하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TA로 임하고 있다. 장유진은 음악원 역사상 보기 드문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수학한 연주자로,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특출한 예술가의 탄생을 예고되고 있다.



## 비올리스트 이한나

HANNA LEE, VIOLIST

비올리스트 이한나는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차세대 비올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이한나는 라비니아, 베르비에, 말보로와 같은 국제 유수의 페스티벌에 여러 차례 초청되어 킴 카쉬카시안, 콜린카, 루시 채프먼, 찰스 나이딕과 같은 명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었고, 2015년 월간 객석이 선정한 '차세대 이끌 젊은 예술가'에 선정되었다. 2009년 뉴잉글랜드 음악원 협주곡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상자 협연 연주회를 가졌으며, 그 외에도 2007년 국제 영아티스트 콩쿠르 1위, 헬람 영아티스트 콩쿠르 특별상, 오사카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를 석권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9년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로 차세대 비올리스트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2011년 '금호아티스트시리즈 독주회', 2014년 '겨울나그네 전곡 독주회', 2016년 '브람스 전곡 독주회' 등 꾸준히 금호아트홀에서 초청 독주회를 열고 있다. 2016년 교향악축제에서 성남시향과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월트 비올라 협주곡을 협연하였으며 2018년에는 KBS 교향악단과, 2017년에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4년에는 코리안심포니와 버트코 협주곡을, 구미음악제에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그 밖에 2012년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청년 필하모닉 협연, KNUA 오케스트라와 NEC필하모닉 등과 다수 협연한 바 있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오순화, 김상진, 이서영을, 커티스 음악원에서 로베르토 디아즈를 사사하였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킴 카쉬카시안 지도 아래 석사과정 및 연주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노부코 이마이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는 2012년 'Kronberg Chamber Music Connects the World'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와 함께 연주하였으며,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뮤직 알프페스티벌, 스프링 페스티벌, 부산 음악제, 구미음악제 등에 꾸준히 초청을 받으며 실내악 연주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 멤버로 정기공연 및 지방투어 연주를 하는 동시에 올림푸스 앙상블, 오푸스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로망 앙상블, 올라 비올라 사운드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1년에 결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의 비올리스트로 활동하며 쇼스타코비치 콰르텟 전곡연주, 베토벤 전곡연주, 아프리카 투어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이한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니스트 최현호

HYUN HO CHOI, PIANIST

피아니스트 최현호는 따뜻한 표현력과 파워풀한 테크닉을 모두 갖추었다. 서울대학교 재학중 실기수석에게 수여되는 오정주 장학금을 받았고, Berlin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KBS한전음악콩쿠르, 한국리스트콩쿠르 등 수많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KBS교향악단과의 서울과 전주에서의 협연을 비롯하여 베를린, 베이징, 블루밍턴, 서울, 부산, 광주, 고양, 파주 등에서의 연주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학사과정을 우등 졸업하였다. 이후 미국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변화경 교수와의 공부로 음악성에 깊이를 더한 그는 보스턴, 토론토, 자그레브 등에 초청받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석사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했다.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연극미디어대학교에서 올리비에 가르동(Olivier Gardon) 교수를 사사하며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Talent Music Master Courses에서 베르트 괴츠키(Bernd Goetzke) 교수와의 수학 등 국제적인 교육을 통해 음악세계를 구축한 그는 최근 하노버와 서울에서의 독주회, 브레머 하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학문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 낮고 깊게, 진하고 뜨겁게 더블 베이시스트 성민제

커다란 악기를 무대 한가운데에 오롯이 세우는 그의 도전은 언제나 정답이 없는 모험이다

사람 한 명쯤은 거뜰히 들어갈 듯한 커다란 울림통을 끌어안고 오케스트라 맨 가장자리에서 열심히 활을 그어대는 연주자. 재즈 트리오에서 나직하게 리듬을 잡아주는 멀대같은 악기. 더블베이스를 떠올릴 때 따라오는 이미지들이다. 누군가의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비단길을 내어주는 착하고 조용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 목소리가 어땠더라?

성민제는 더블베이스의 목소리를 키우려 한다. 그가 더블베이스를 무대 한가운데로 세우자, 한없이 낮은 저음만 낼 것 같던 악기는 예상외로 날카롭게 외칠 줄도 알았고, 느리고 둔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렵하다. 이 친구, 매력 있다.

성민제의 더블베이스는 자유롭다. 마치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태생이 독주 악기인 듯 악보 위를 활주한다. 오는 3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의 공연을 앞둔 그를 만났다. 그는 아직도 더블베이스를 통해 하고픈 말이 많다.

**이번 공연의 2부를 크라이슬러의 작품들로 채운다. 크라이슬러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크라이슬러는 바이올린 작품을 주로 남긴 작곡가인데, 더블베이스로 가장 화려한 바이올린의 선율을 상반된 느낌으로 연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바이올린·비올라·피아노와 함께하는 실내악으로 편곡된 버전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2017년 10월에는 더블베이스를 위해 작곡된 곡들만 가지고 공연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악기 작품들을 더블베이스로 편곡한 곡들을 모았다. 더블베이스를 통해 작품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표현에 있어 까다롭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크라이슬러의 작품들은 2011년에 편곡자의 도움을 받아 편곡했다. 각 4-5분 정도의 짧은 길이의 곡들이지만, 제각각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 바이올린으로만 연주해도 빈틈없는 곡인데, 다른 편성으로 편곡을 하다 보니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렵기도 했다. 기존의 곡이 워낙 완벽해서, 현악 앙상블 구성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지 고민이 많았다.

**공연 부제가 '조연에서 주연으로'다. 더블베이스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이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더블베이스가 중심에 서는 무대는 매우 한정적이고, 주연을 차지하는 것이 아직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1세대·2세대 연주자 등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배 연주자들이 많아서 배우고 참고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은데, 더블베이스에서는 딱히 정해진 모델이 없다는 점도 때로는 힘들다. 더블베이스를 가지고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지금 나의 과제다. 나에게 대한 대중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참고할 모델이 없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무엇을 하든 새로운 시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솔로악기가 아닌 앙상블악기도 하나의 주연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관객 여러분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무대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 더블베이스의 영토확장

**글쎄, 성민제라는 사람을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번에 여러 가지는 아닌데, 이번엔 A, 다음엔 B,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 같다. 운 좋게 감사하게 타이밍이 잘 맞았을 뿐이다.

**그 타이밍이 맞으려면 자기 안에 원하는 바가 늘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건 맞다. 하고 싶은 걸 늘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간절히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앨범을 자주 내고 싶다. 게리 카(Gerry Karr, 1941-)라는 더블 베이스리스트가 있는데, 전설적인 연주자다. 이 분 때문에 더블베이스라는 악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블베이스도 독주 악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다. 내 아버지도, 나도, 나보다 어린 학생들도 이분의 음반을 들으며 공부한다. 게리 카처럼 나도 베이스의 매력을 음반을 통해 다채롭게 보여주고 싶다.

**리처드 용재 오닐, 문태국, 신지아, 대니 구, 김한, 조윤성 등 여러 연주자들과 함께 다양한 무대를 갖고 있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협업자를 찾아서 함께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런 작업들은 너무나 즐겁다. 앙상블은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받쳐줄 때는 확실히 받쳐주고, 신선한 시도도 많이 할 수 있다. 장유진·이한나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도 그렇다. 이를 통해 베이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좋다.

**더블베이스의 다양함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음부터 고음까지 넓은 음역을 커버하고,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넘나든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악기'다. 내 길도 그렇다. 언제나 모색하고 탐구하고,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발전하고자 한다. 발전가능성이 많은 악기다. 베이스를 위한 현대음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레퍼토리오 확장되고 있다.

## 길 위에서 나를 돌아보기

**2008년 '객석'이 선정한 차세대 유망주에 이름을 올렸다. 11년 전 그때의 성민제와 지금의 성민제는 어떻게 다른가?**

(2008년 기사를 한참 들여다보고)그때는 허세가 있었다. 음악도 허세스러웠고, 쇼맨십도 많이 신경 썼다. 그럴 만한 나이였다. 그 대신 에너지가 넘쳤다. 며칠 밤을 새서 연습해도 고떡없었는데.(웃음) 예전에는 베이스를 다루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힘을 뺄 줄 몰랐다. 베이스를 편하게 솔로로 연주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불과 3~4년 전까지도 악기가 어려웠다. 이 큰 악기를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렇다면 10년 뒤의 성민제는 어떤 모습일까?**

음... 어렵다. 나만의 색을 찾은 아티스트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앨범도 더 많이 내고, 좋은 공연도 자주 만들어야겠다.

**1990년생, 한국 나이로 올해 서른이다. 이제는 음반과 공연을 통해 '성민제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남겨야 하는 것이 30대의 과제가 아닐까.**

서른이 되고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 20대는 좌충우돌하고 불안이 많았고, 정체성도 확실치 않았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하는지, 독주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한국에서 계속 살지, 해외에 가야 할지 등 고민이 많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생각이 안정되고 훨씬 명료해진 것 같다. 20대의 불안한 숙제들을 마친 것 같다. 예전에는 늘 들떠있었는데, 많이 차분해졌다. 더블베이스는 사실 오케스트라를 위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더블베이스를 연주하는 나의 다른 가족들도 다 오케스트라에 있었어서, 나도 오케스트라에 입단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20대 내내 했다.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어쨌든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음악을 하는 한 능력이 되는 데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봐야겠다는 것이더라.

글 | 이정은 [객석 기자]

<객석> 2019년 3월호 발행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4월 12일 보스턴 신규 취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 **BASS PLAYS KREISLER**

DOUBLE BASSIST SUNG MINJE RECITAL

**CRE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